



2025년 1월호

겨울 깊어지니 생강 생각나!

사라락사라락 내리는 눈과 함께 겨울이 깊어갑니다. 새해는 이미 밝아
 열 두달의 운행을 시작했지요, 근래에 동장군이 제 일을 본격적으로 시
 작하니 자연스레 따뜻한 생강차가 떠오릅니다. 허나 생강이 들어간 게
 어디 차편이겠습니까, 과자로 음료로 완주 곳곳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생
 강의 변신을 찾아왔습니다.
 관련 기사 2-7면

- 정리수남은 '두배공간'에 ... 8P ● 삶의풍경 동상 김맹준 이야기 ... 10P
- 고산마을 배움사회적협동조합 ... 9P ● 폐자재에 그림그리는 화가 홍성미 ... 12P



차부터 쫄득한 버터바, 폭신한 크림빵까지 생강간식 열전 당신의 선택은?

알싸한 향기 속에 숨어 있는 은은한 단맛이 일품인 생강. 맛도 좋을뿐더러 신진대사 기능 향상과 기관지 질병 예방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좋다. 특히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철, 몸이 으슬으슬해지면 따뜻한 생강차가 절로 떠오른다. '전통 생강'으로 유명한 완주 곳곳에 생강을 색다른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카페들이 있다. 생강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알아보자!

생강쿠키에 마들렌, 생강라떼까지

카페 진저

- 주소: 완주군 삼봉로 807
- 영업시간: 10:00~
(마감시간은 마지막 손님이 나가실 때)

생강을 테마로 한 '카페 진저' 멀리서부터 노란빛 간판을 보고 어떤 카페인지 짐작할 수 있다. 4대째 생강 농사를 짓고 생강 가공 농장까지 운영하는 주인장과 가족들이 문을 연 곳이다. 카페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벽면에 진열된 편강, 생강가루, 생강즙 등 여러 생강 가공 제품을 구경할 수 있다. 종류도, 포장 패키지도 다양해서 구경하는 맛이 있다. 카페 진저에서는 가공 제품뿐만 아니라 직접 담근 생강청으로 만든 생강레몬차, 생강라떼 등 다양한 레시피의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생강으로 만든 마들렌과 쿠키도 있다. 생강 특유의 맵기는 줄이고 은은한 당도를 살린 디저트는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다.



생강쿠키와 마들렌, 편강

생강레몬차와 생강라떼



생강차

용진로컬푸드 도농산센터

용진로컬푸드 2층에 자리잡은 도농산센터 카페에서는 겨울철 따뜻한 음료로 인기 있는 생강차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생강차는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여, 자연의 맛을 그대로 담았다.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건강 음료로, 겨울철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아 가장 인기 좋은 메뉴다.

- 주소: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187
- 영업시간: 11:30~18:00
- 문의: 063-240-6927

꾸덕한 식감이 일품인 생강버터바

떨기맛? 곱감맛?
취향껏 골라요

달달구리

- 주소: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4
- 영업시간: 7:30~18:00(토 10:00~, 일12:30~)
- 문의: 0507-1378-5592

생강골시장 입구에 다다르면 보이는 이곳이 바로 완주 농산물로 맛있는 디저트와 빵을 만드는 '달달구리'다. 주인장의 가족이 직접 재배한 생강으로 만든 생강버터바는 꾸덕꾸덕한 식감으로 유명하다. 토종 생강을 손질해 정성스레 끓인 푸레가 들어가 더욱 진한 맛이 난다. 향긋한 생강 크림과 커피의 조화가 환상적인 생강슈페너도 있으니 함께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포장 패키지가 귀여운 달달구리 버터바는 쓱싹감과 떨기 맛도 있어서 함께 선물 세트로 구입하기 좋다.



생강 버터바





봉동커피

생강+커피+휘핑크림이 만났다!

생강골시장 안쪽에 자리 잡은 '봉동커피'는 주인장이 직접 원두를 블렌딩하고 로스팅하는 커피전문점이다. 원두 종류와 카페인 여부도 선택할 수 있어 커피 애호가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하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주인장이 생강에 진심인 곳이다.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진한 생강 향에 휩싸인다. 카페 안쪽에서 주인장이 매일 커다란 냄비에 마치 한약을 달이듯 오랜 시간 생강차를 끓이는데, 덕분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진한 생강차를 마실 수 있다.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넘기는 순간 몸 구석구석 온기가 퍼진다. 씩씩한 생강을 조금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면 생강아인슈페너를 고르면 된다. 달콤한 휘핑크림으로 인해 생강의 매운맛이 중화된다.



생강아인슈페너



끓고 있는 수제생강차



생강차

- 주소: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81 102호
- 영업시간: 10:00~22:00
- 문의: 063-262-0685

•봉동커피 주인장이 추천하는 생강 활용 레시피

생강과 대추, 감초를 2:1:1 비율로 섞어 끓여 마시면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고 온 날 감기에 안 걸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는 입맛이 없을 때 생강을 찢어 설탕이나 꿀에 재웠다가 얇게 찢어 말려 달콤한 과자로,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서 새콤한 반찬으로 먹어도 좋다.

흑곶감크림빵



봉동생강크림빵

와양

생강발효시럽 크림을 듬뿍듬뿍~

귀촌한 청년부부가 완주 농산물로 맛있는 빵을 만든다. 'KBS 동네 한 바퀴'에서도 소개되었던 빵집 '와양'의 대표 메뉴인 '봉동생강 크림빵'이다. 전통 농법으로 재배된 토종 생강으로 만든 생강 발효 시럽의 달콤함과 부드러운 크림이 만나 입안에서 녹아내린다. 토종 생강의 맛을 듬뿍 느끼고 싶다면 꼭 먹어보자. 지금이 쫄득하고 달콤한 흑곶감과 고소한 크림치즈가 맛있는 '흑곶감 크림빵'도 만날 수 있는 적기!

- 주소: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4
- 영업시간: 8:30~19:00 (월, 화 정기휴무)
겨울휴무_ 1월 20일 ~ 2월 18일
- 문의: 0570-1338-6406



생강의 6가지 효능

천식, 기침 등 기관지 질병 완화
면역체계 강화 및 관련 질환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소화 기능 향상
항균 및 암 예방





생강 들어간 게 어디 사탕뿐일까?

완주몰에서 잘나가는 생강과자들

겨울이 깊어가는 이 계절 완주몰에 입점한 생강 제품을 소개한다. 완주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토종생강을 사용해 만든 생강과자들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으로 추운 겨울날에 더욱 어울린다. 생강의 자연스러운 풍미가 가득한 이 간식은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좋다. 온 가족과 함께 나누기 좋은 건강한 겨울 간식 완주몰에서 만나보자!

달새양 생강젤리

식이섬유가 풍부한 한천으로 만든 식물성 젤리. 몸에 좋은 생강을 달콤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인기만점!



미소공주 생강나뭇배기

우리밀과 봉동생강으로 만든 건강한 파배기. 식감이 바삭하고 생강맛과 향이 은은해 아이들 포함 온 가족 영양간식으로 좋다.



미소공주 생강과즐

생강과즙으로 만든 전통 과자로 밀가루를 튀겨 생강조청을 바르고 쌀튀밥을 붙인 과자다. 30겹이 살아있는 생강과즐은 우유, 차와 함께 먹어도 좋다.



고간 오란다 생강오란다

청정 완주 생강에 쌀조청, 현미를 더해 더 부드럽고 고소한 오란다. 선물용으로도 좋다.



달새양 생강칩

1mm의 얇은 두께로 바삭한 식감이 중독적인 생강칩. 커피, 맥주와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건강 간식이다.



편강

편강은 국내산 생강을 엄선하여 깨끗이 세척 및 탈피 후 얇게 썰어 생강 모양을 살린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생강을 간편히 주전부리로 즐길 수 있는 전통과자다.

봉동생강마을



봉상생강조합





송승관 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와 직원들이 갓 생산한 제품을 들고 웃고 있다.

생강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제격

완주물 베스트셀러 **홍삼이생강날때** 송승관 대표

‘홍삼이생강날때’는 직접 재배한 신선한 생강과 5년근 인삼을 활용해 건강 가공품을 만든다. 수확된 인삼은 1년간 숙성 후 액체로 추출되며 화학 첨가물 없이 순도 100%를 자랑한다. 저온에서 72시간 동안 정성껏 달여 본연의 효능은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소비자에게 겨울철 건강관리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삼이생강날때를 소개 해 달라

2019년부터 용진읍 가목리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생강 밭 3만 평을 유지하며 100% 착즙으로 물 한 방울도 넣지 않은 생강원액을 만들고 있다. 올해는 직원 수가 늘어나 8명이 함께 일하며 더욱 활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홍삼이 생강날 때’ 제품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과 바이러스 등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세노사이드가 한 포당 28.8mg/g 함유되어 있다. 타사 제품에 비해 고함량을 자랑하는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여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한다.

제품은 어디에서 구매 가능한가

현재 자사사이트와 완주군직영사이트 완주물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완주물은 이벤트 할인이 많아 저렴하게 판매되기도 한다. 기존 우체국쇼핑몰, 쿠팡 등 이외에도 마켓컬리까지 입점해 있어 쉽고 편리하게 구매 가능하다.




직접 재배한 생강이 들어간 다양한 생강청들

겨울에 생강청을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우유를 넣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한 생강라떼를 추천한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며 생강의 매콤함을 부드럽게 잡아준다. 요새 유행하는 하이볼로도 즐길 수 있는데 원액을 10ml 정도 넣고 얼음과 위스키 탄산수를 부어 생강 하이볼로 즐기는 것을 강력 추천한다.

새해맞이 앞으로의 다짐 한마디

올해는 지금까지처럼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건강 제품들을 더욱 다양하게 선보이고 싶다. 특히 올해는 유기농 아기와자와 같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즐기는 홍삼과 생강을 활용한 가공품들로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어머!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홍보·체험관**도 있어요

완주생강에 대한 모든 것 모아 올 9월에 첫선

완주군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등재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인 신기마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홍보·체험관(이하 홍보·체험관)’을 건립한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 완주군은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홍보·체험관 건설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홍보·체험관이 자리 잡을 곳은 완주 지역에서 대대로 생강 재배 전통이 이어져 온 신기마을이다. 완주생강의 전통적인 보관 방식인 ‘온돌식 토굴’을 복원·관리하고 있는 ‘생강굴 주택’이 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장소다. 특히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와 농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도농교류 프로젝트가 종종 진행될 때마다 신기마을을 반드시 거쳐 간다. 지난해 10월 12일 ‘완주생강 국가중요농업유산 도농상생 소비자 교류팸투어’, 11월 9일 ‘완주생강 농업유산 도농상생 기업교류’ 행사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중요성과 상징적 의미를 인정받은 신기마을에 들어설 완주생강 홍보·체험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지난해 하반기 완주군은 지

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19억 원(도·군비 각 9억 5,0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300여 ㎡ 단층




백송기 씨의 생강굴 보존주택,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생강굴을 살펴보는 백송기 씨



아래_기존에 지어진 생강굴 주택 리모델링 건물과 설명표지판.

건물로 조성되는 홍보·체험관은 전시 공간, 미디어아트 체험관, 카페 등 편의시설로 구성된다. 기존에 지어진 생강굴 주택 리모델링 건물과 맞닿아 있어 직접 보고, 만지고, 듣는 연계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디어아트 체험관에서 완주생강 농업유산 자원 보존 노력을 담은 내용과 완성도 높은 영상 콘텐츠를 결합한 실감형 미디어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완주생강 홍보·체험관이 완주군 농업유산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며 “완주생강이라는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역사와 미래를 잇는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생강 전통 보관 방식 ‘온돌식 토굴’은

추위에 약한 생강은 15~18℃의 따뜻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썩지 않는다. 11월에 수확한 생강을 이듬해 4월 새롭게 농사짓기 전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집마다 구들장 아래 토굴을 만들었다. 지하에 위치한 데다가 온돌의 열 덕분에 일정하게 따뜻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신선한 생강을 수확하지 않는 철에 내다 팔 수 있었다.





생강 넣어 하나도 비리지 않아요

자연농법으로 생강 키우는 강경순 씨의 갈치조림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의 매력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 봉동 울소리 마을에서 자연농법으로 생강을 재배하는 강경순(65) 씨만의 특별한 요리를 공개한다. 생강의 풍부한 향과 강한 열감을 살려, 겨울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요리들이 탄생한다. 전통적인 생강차는 물론, 생강을 활용한 깊은 맛의 국물 요리, 고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양념, 그리고 씹쓸한 맛이 돋보이는 나물까지, 겨울의 추위를 녹여줄 다양한 레시피들이 가득 담겨 있다.

재료[2인분]

갈치 2마리
물 500ml
손질 갈치 3~5토막
무 200g
대파 20cm
생강뿌리(강수) 2줄기
생강 대
생강 잎(비린내 제거용)

양념

고추장 큰 1숟가락
고춧가루 큰 1숟가락
설탕 2/1숟가락
진간장 2숟가락 (색깔 내기용)
꽃소금 한 꼬집

[조리팁]

-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생강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념에 재울 때 생강뿌리를 같이 버무려 30분 정도 두면 더 맛있어요.
- 고소한 갈치 살을 발라 무와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밥도둑 갈치조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들기

[손질하기]

- 갈치는 비늘을 잘 긁어 제거한다.
- 핏물은 비린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갈치 사이사이 핏물을 잘 씻는다.
- 지느러미도 깔끔하게 잘라낸다.

[부재료 준비하기]

- 대파를 20cm 넉넉히 준비해 어슷 썰기한다.
- 무 300g 정도로 깍둑 썰기 한다.
- 생강뿌리 2줄기를 3~4cm 로 잘라준다.
- 생강대 2줄기를 3~4cm 로 잘라준다.
- 생강 잎 3~4cm 로 잘라준다.

[조리하기]

- 냄비 바닥에 무를 깔아준다.
- 생강뿌리를 한 움큼 올려준다.
- 생강대를 강수 옆에 올린다.
- 생강잎은 한 켠에 올린다.
- 준비 한 양념을 재료 위에 올린다.
- 양념이 골고루 베일 수 있게 잘 섞어준다.
- 마지막으로 갈치를 가지런히 올려준다.
- 센 불로 졸인다. 중간 중간 눌러 붙지 않게 흔들어준다.
- 어느 정도 줄어들면 중간 불로 줄여준다.
- 생강을 넣어 비린맛이 전혀 없는 갈치조림 완성!

앞부터 줄기, 뿌리까지 생강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 만든 갈치조림은 비리지 않고 깊은 맛을 낸다.



공간을 두~배 넓게! “정리수납은 우리에게!”

정리수납 전문업체 두배공간

지난 1월 7일 삼봉지구 소셜굿즈창업스테이션에 자리 잡은 ‘두배공간’ 사무실에서 오수현(57) 대표와 서영란(52) 이사를 만났다. 두배공간은 정리된 공간에 가치를 더하는 정리수납 전문업체다. 2023년도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공간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모여 두배공간이 탄생했다.

두배공간 오수현 대표는 “정리수납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공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물건의 중복 구매를 막고, 정돈된 환경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만든다. 그는 “봉사활동 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리수납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배공간의 정리수납 서비스는 현장 방문 또는 사진 확인을 통한 견적, 두배공간 내 1차 협의, 사회복지사와의 2차 협의, 서비스 및 교육 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단순한 정리수납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

정리수납은
단순한 물건 정리 아닌
효율적으로 생활하게 돕는 일



대상자의 주방과 인방을 정리 중인 두배공간 직원들

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두배공간 직원들은 청소전문관리사, 상담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상자에게 다양한 측면



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 대표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와의 만남에서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집안 상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여간 쉽지 않다. 눈이 평평 내리는 날 다시 돌아올 각오를 하고 현장에 방문하거나, 돌연 결정을 번복한 대상자를 다시 설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두배공간 직원들의 따뜻한 진심은 언제나 통하게 되어 있다.

서영란 이사는 “마지막까지 거부하시던 어르신 이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고맙다며 밥 먹고 가라고 권하실 때 감동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대상자들이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무척 기쁘다”며 “팀원들이 있어서 일이 더 재미있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고 나면 보람차다”고 웃었다.

두배공간은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과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4월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대상 가구를 위한 정리정돈 수납서비스 및 교육 제공 계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삼례읍행정복지센터와 2년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개설한 협동조합 전환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에 꾸준히 참가하는 등 조직 성장 측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두배공간이 올해 바라는 것은 정리수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다.

오수현 대표는 “지속적인 정리수납 교육과 케어가 절실한 가정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길 바라며, 두배공간도 대상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란 이사(왼쪽)와 오수현 대표가 정리수납에 필요한 물품을 들고 웃고 있다.

“마을이 학교로, 아이들의 길을 열다”

고산마을배움사회적협동조합

2021년 1월에 설립된 고산마을배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고산마을배움 사협)은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임상수(48) 이사장은 오랫동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에 대해 고민해온 끝에, 비슷한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활동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고산마을배움사협의 설립 배경에는 고산향교육공동체(이하 고산향)가 있다. 고산향은 2011년에 ‘향기 나는 고산교육공동체’라는 뜻으로 결성되었으며, 지역의 학부모, 학교, 마을 교육 주체들이 협력하는 상설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공동체는 ‘경쟁을 넘어 협력하는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16년 고산청소년센터 ‘고래’와 고산 풀뿌리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 후, 2020년에는 센터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맡을 법인 설립의 필요했고 이에 따라 고산향 내 간담회를 거쳐 고산마을배움사협이 설립됐다. 이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어떻게 성장할지를 고민한 결과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지원하고 마을 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 만든 공동체다.

임상수 이사장은 “마을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 당시 마을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역 주민으로서 마을의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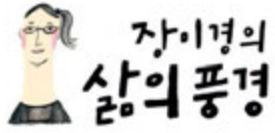
현재 고산마을배움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여

명이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고산 다함께돌봄센터 ‘모두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님’이라는 교육목표를 가지고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모두의 놀이터는 지역 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위한 돌봄 공간이다. 이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학습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임상수 이사장은 “앞으로 마을 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경계를 두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더 나은 지역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자 할 것이다”고 전했다.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하고 있다.



동상 활조리마을 김맹준 이야기

타고난 손재주로 진득하니 살아온 삶



황새목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김맹준 씨.

김맹준 씨는 1955년 동상면 사봉리 황조리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후 스무 해가 지나서야 전기가 들어왔으니 호롱불과 호야등 켜고 지내는 생활이 익숙했던 터라 자신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노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노동을 하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맹준 씨의 노동연대기는 그의 나이 10살부터 시작된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리가 소년에게 버거웠지만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아이는 동네 어른들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고 어른 한 사람 몫을 제법 잘 해냈다. 그의 어머니 故이부열 여사는 옆에 붙어 있으려는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 ‘떠나거라. 도시로 나가거라. 고향 떠나 살거라.’

아들이 자신의 삶을 살길 바랐던 어머니는 자식들을 도시로 떠나보냈다. 어머니 말을 잘 들던 그는 마지못해 도시로 나갔다가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등 떠밀렸지만 기어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흠어져 있던 조상들의 묘와 몇 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 묘소까지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모셔놓고 나니 어린 소년은 일흔을 훌쩍 넘긴 어른이 되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내 일을 도우며 자신은 고향 땅에 농사를 짓고 손기술이 아까워 부업 삼아 집수리 일도 종종 한다. 장사하며 사람들 상대하는 것보다 투박한 손을 굴러 먹고사는 것이 천직인 사람이다.

맹준 씨의 노동연대기

혼자 된 몸으로 사 남매 굶기지 않으려 먼동 트기 전에 밭으로, 산으로 나서야 했던 어머니를 보고 자란 맹준 씨는 투정 부릴 새가 없었다. 소년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다.

“어린 시절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내 또래 친구들도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더라고. 부모형제있는 애들은 그런 고생을 안 했으니까. 나는 11살부터 지게질하면서 살았어요. 산에 가서 땀감 주워 오고 나락을 주워다가 흠태에 훑어서 솥에 쪄서 햇빛에 말려서 절구질해서 동생들 밥을 해 먹었지. 들확에다가 보리쌀 갈고, 아랫집 할머니한테 맨날 혼나감서 배웠어. 동네 어른들 어깨 너머로 일을 배웠어요. 손재주는 내가 생각해봐도 타고난 거 같아요. 지게바작이나 명석 같은 것도 한번 보면 만들 수 있겠더라고. 14살 때는 지게를 만들어서 동네 어른들에게 팔기도 했어요. 맹준이가 야무지게 잘 만든다고. 그때 일당 받는 일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다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가진 갔는데 아침에 어른들이 연석산으로 풀치러 가는데 나보고 ‘야! 학교는 무슨 학교야. 임마! 산에 가서 풀이나 쳐라’ 그래서 가방 놓고 어



위_ 김맹준 씨 고향 뒷 산의 선산. 경주김씨 삼천공파 8대를 다 모셔놓은 묘소가 호남지역에서는 드물다고 한다.

아래_ 어린시절 또래보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 손은 작은 편이었다. 손이 작아야 재주가 많다는 어른신들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른들 따라 산에 가서 하루 일당 60원 받아봤지.” “15살 겨울방학 때는 동네 할아버지가 초가집 지붕을 이는데 나보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짚을 엮어서 이엉을 만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지붕도 새로 했지. 그 당시 어른들 하루 품삯이 200원이었는데 나는 250원을 주더라고. 일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한다고. 그때 처음으로 많이 받아본 품삯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빚 때문에 죽어라 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고산농협에서 빚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그때 돈으로 삼만 원. 어머니는 갚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확인할 수는 없고 억울하지만 갚았죠. 어머니랑 나랑 산에 가서 양귀비 농사를 지어서 나 16살엔가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 당시 이 동네사람들은 산에서 양귀비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불법이라고 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 되는 것은 다 했지. 그 뒤에는 경찰들이 단속하고 흥흥하니까 그만뒀지. 16살 고향 떠나기 전에 이 동네에서 일이라는 것은 다 했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화전을 일구다.

16살 중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떠나려는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군산, 대구, 전주에 있는 공단을 떠돌며 가구 조각하는 일을 배웠다. 거뭇거뭇한 청년이 된 19살 맹준 씨는 힘도 넘치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 푸른 마음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그때 내가 고향 와서 처음 한 일이 저그 황새묵에 화전을 일궈었어요. 땅이 없으니 산골짜기에 불을 지르고 팽이로 땅을 파서 밭을 만들어서 담배농사를 지은 거죠. 그해 가을에 담뱃잎 팔아서 24만 원을 벌었어요. 그 당시 쌀 한 가마니에 만 원 할 때였어요. 밭은 세 가마니 주면 200평을 살 수 있었고 논은 열 가마니를 주면 살 수 있었지. 그 이듬해에 또 농사지어서 27만 원을 벌고 그 돈으로 논 닷 마지기를 샀어요. 그 논에서 첫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끼바리 쌀을 열 세 가마니 수확을 했죠. 동네 길가 방앗간에서 쌀을 방아 찧어다가 집에 쌀가마니를 딱 쌓아놓고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엄마! 나 내년부터는 보리농사 안 지어. 이제 보리밥 안 먹어. 우리 이제 쌀밥 실컷 먹자!’ 보리가 얼마나 질리던지 사람들은 건강에 좋고 별미라고 먹는데 나는 50살이 넘도록 보리밥집은 절대 안 갔어요. 쌀가마니를 쟁여 놓으니까 정말 부자가 된 거 같더라고요. 젊지. 일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신이 났지.”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말이 하도 생생해 스무 살 시절의 얼굴이 일흔의 얼굴에 겹쳐 보였다. 자신이 농사지은 쌀을 집 안에 쌓아놓고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불러 세워 그 쌀을 자랑하던 스무 살 청년의 눈가에는 지금처럼 촉촉하게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이다. 농사를 지어 자신의 힘으로 고향에 땅 팔천 평을 사고 마을에서 들째가라면 서운한 부자가 되었다. 그 시절이 맹준 씨의 화양연화 시절이었을 것이다.

“동상면에 우리 또래, 54~55년생들이 60명 정도 되었어요. 동상면 청년회를 조직했죠. 그 당시엔 원체 산골이다 보니 평생을 동네에서만 지내던 시절이었죠. 나는 20살에 동상면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 일대 사람들을 다 알지. 청년회 조직해서 동상면 마을 일을 했어요. 여기저기 기본적으로 50리(약 20km)를 다 걸어 다녔죠. 농사짓다가도 청년회 누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걸어서 가는 동안 하루가 걸려. 중간에 마을 들러서 사람들 불러서 같이 가고. 처음에 혼자 걸다가 나중에 눈덩이 불어나듯이 여러 명이 함께 걸어서 초상집 갔다가 또 돌아올 때 하루 꼬박 걸리고. 그때 그 청년회 조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초중학교 동창들 모임을 지금껏 하고 있죠.”

맹준 씨가 어머니 말을 거역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한다. 14살 때 학교 가라는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산으로 돈 벌러 갔던 때였다.

- 다음 호에 계속 -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5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을 소개한다.

느리지만
깊고 고요하게,
오래도록 관계하기

홍성미 화가

느리다고 서투르다는 건 아니다. 느린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남들이 보지 않은 빛나는 순간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다. 차곡 차곡 쌓인 느낌의 결과물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모아온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홍성미 작가는 생활과 작업을 분리시켜 놓고 그리는 것에만 몰두한 작가는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하여 삼 남매를 낳고 키우며 아이돌봄, 가족돌봄의 세월을 보냈다.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그림 작업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 만큼 천천히 쌓아 나간 촘촘한 그물망 같은 관계들도 깊어졌다. 느리느리다고 서투르다는 건 아니다. 느린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남들이 보지 않은 빛나는 순간들을 축적해 놓을 수 있다.

차곡차곡 쌓인 느낌의 결과물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모아온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홍성미 작가는 생활과 작업을 분리시켜 놓고 그리는 것에만 몰두한 작가는 아니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하여 삼 남매를 낳고 키우며 아이돌봄, 가족돌봄의 세월을 보냈다. 누군가를 돌보는 동안 그림 작업에 대한 갈증이 깊어진 만큼 천천히 쌓아 나간 촘촘한 그물망 같은 관계들도 깊어졌다.

『나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생각하며 그림을 그린다. 인간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등 끊어져선 안 되는 연결고리이기에 모두 소중하다.』 - 홍성미 작가의 글 중에서

버려지는 것들과 관계맺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직장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에서 20년 넘게 세월을 보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이었다. 아이 셋 키우는 동안 아이들 물건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신의 그림작업을 위한 공간은 없었다. 종이 한 장 펼칠 공간이나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버려지는 재료들을 탐구하게 되며 그림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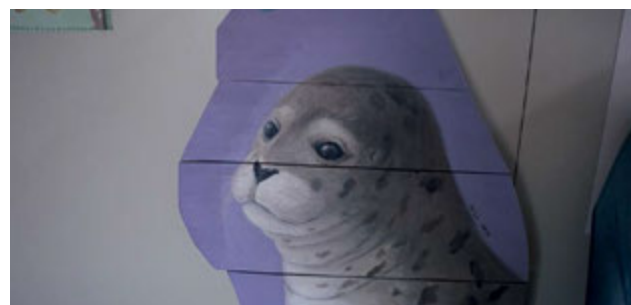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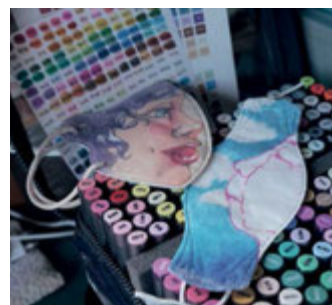
“예전에는 화가들이 캔버스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재료에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지, 재료 선정도 중요하다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버려지는 좋은 재료가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하고 남은 폐자재들을 구해서 거기다 그리고, 버려지는 옷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콩 삶은 물이나 커피로 그림을 그렸죠. 큰 애를 임신했을 때 인테 싱크대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인스턴트 커피가 있더라고요. 땡땡하게 굳은 것을 어떻게 살릴까 하다가 이걸로 그림을 그려볼 생각을 한 거죠. 명반하고 소금 넣고 끓이고 졸여서 물감처럼 고체형태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좋은 재료예요. 아이 셋 키우다 보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이가 살아갈 환경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무책임하게 살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버리지 않게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상황에 맞게 버려지는 재료들을 찾았던 거 같아요.”

박완서 작가가 생각났다. 다섯 아이 낳고 키우는 동안 전업주부로 살다가 마흔이 돼서야 등단을 해서 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작가. 생활과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글이 생생하던 작가의 글처럼 홍성미 작가의 작품들도 그러하다.

아이 셋 키우다 보면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철마다 새옷을 사입히는 것도 무리다 보니 무엇이든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홍성미 작가는 재봉틀로 온갖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아이들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던 재봉틀을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이제 훌쩍 커버린 아이들의 작은 옷들은 차마 버릴 수가 없다. 그 옷들이 간직한 추억들이 떠올라 옷을 잘라 바느질처럼 엮어 작품으로 만들어 작업실 벽면에 걸어 둔다. 죽어 있는 재료가 아니라 저마다의 시간과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재료로 만든 작품들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나무판, 옷가지, 종이조각 등에 아크릴 물감과 유통기한이 지난 인스턴트커피나 콩 삶은 물로 그림을 그리고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지구의 환경, 멸종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그려 다시 살린다. 홍성미 작가는 2020년 가을, 뇌경색으로 쓰러



진주 살던 시절 미술개인교습하던 아이들과 함께 하던 모습. 버려진 마스크나 폐자재를 활용한 그림작업.



지셨던 어머니의 입원생활을 함께하며 펜데믹 기간 동안 수없이 제작되고 버려지는 ‘마스크’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다. 병원이란 긴박한 곳에서 마스크 안에 숨겨진 불안, 그리움, 슬픔을 관찰했고 그 벽을 넘어 서로 껴안거나 만질 수도 없는 안타까움, 애뜻함을 느꼈다.

버려지는 마스크를 어렵게 모아 살균세척하고 말려서 그 위에 유성펜으로 그림을 그렸다.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모두의 간절한 이야기를 마스크에 그려 촘촘히 엮어내 설치하는 ‘마스크작업’을 2020년 ‘미술과 상생전’에서 처음 선보이게 되면서 2022년 첫 개인전 ‘소소한 생각’ 이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다.

모두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

홍성미 작가는 진주에서 살던 시절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 5~6명을 모집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추억도 소중하다. 보통은 1시간씩 수업을 하는데 그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더라도 긴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를 던져주고 몇 분 이내에 그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어떤 것을 그릴지 자신이 결정하게 하는 것. 생각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이었다.

“처음에 아이들 수업할 때는 수동적으로 선생님 오늘은 뭘 그려요? 묻던 아이들이 다음부터는 선생님 저 오늘 뭐 그릴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배운 게 많아요. 아이들에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한 호흡으로 느리게 천천히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것이 재미있

었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곤 했죠.”

또한 그의 외삼촌 최춘기 작가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소양에 있는 친정집을 오갈 때마다 사람과 벽을 쌓은 춘기삼촌이 늘 마음이 쓰여 스케치북과 물감을 삼촌 방 앞에 두고 갔는데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흰 스케치북이 그림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그 뒤로 춘기 삼촌은 완주에서 소 키우며 소양의 산과 물이 있는 풍경, 매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었다. 홍성미 작가는 그림이 한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다.

2010년부터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한 친구 고보연(설치미술가) 씨와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주에서 군산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하면서도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다. 알콜중독 예방하는 단주모임회원들, 노인들, 발달장애인들과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며 자신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북대 미대 졸업생들의 단체전 ‘지속과 확산’을 준비하면서도 겁이 났다. 10년 넘게 쉬다가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두렵고 조바심 났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비워야 길이 보인다. 홍성미 작가의 삶의 방식인 느리게 천천히 가다 보면 누구보다 더 오래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을.

2017년 소양 친정 부모님과 합가하면서 단정하고 소박한 집을 지었다. 2층에는 그가 꿈에도 그리던 작업실이 있다. 두 면을 차지하는 큰 창밖으로 산과 들이 보인다.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등 딸 노릇을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작업실 불을 밝힌다. 밤과 새벽에도 언제나 불을 밝힐 수 있는 작가의 작업실이 생긴 것이다. ●

홍성미 작가 e-mail: mi222@naver.com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새로왔어요

“공동체 일원이자 귀촌인으로
안정적 완주정착 희망”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유창동 광역사무장

반갑습니다,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에서 2025년 광역사무장으로 일하게 된 유창동입니다.



30여 년 IT 개발자로서 많은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진행해 왔고, 앞으로의 남은 생은 농업 및 산림경영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자 2024년 1년 동안, 완주 체류형 귀농 관련 교육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숲이 너무 좋아,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받은 숲해설가로서 산속 친구들만의 스토리를 확인해 가며 조금 더 친숙하게 매주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광역사무장으로, 마을공동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경제, 문화 마을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 아직은 초보 귀촌인인 저 또한 마을 공동체생활을 같이 함으로써 향후 안정적으로 완주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명몽이 검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완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성숙한 신뢰관계

몽세프 두이브 글 | 메 앙젤리 그림 | 성미경 옮김 | 분홍고래

사자와 세 마리 물소



비교적 단조로운 색감에 사자의 표정까지 표지 그림이 심상치 않다.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은 저자가 아랍 우화를 가져와 만든 그림책으로, 일상을 함께하던 세 마리 물소가 터전을 떠나 사자를 만나면서 달라지는 집단 모습을 보여준다.

물소 집단은 얼핏 두터운 신뢰관계로 보이지만 일상적 접촉에 의한 기계적 공동체이다. 이런 점은 갈등 상황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데, 소들의 대응을 보면 이들이 서로 성숙한 신뢰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자의 말 몇 마디로 그들끼리의 적자생존과 제로섬적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소는 '드디어 자신이 먹힐 차례'가 왔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마치 포식자와 같은 현 사회 구조 속 개인의 경우와 많이 닮았다.

인간은 모두 다르다. 책 속 소들처럼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환경, 직업과 성별 등 다르기를 말하자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결코 좋고 나쁨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능력을 위한 개인의 부담은 과도해지면서도 오히려 개성으로 키울만한 점들이 차별의 빌미가 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피부색이 달라서, 몸이 달라서, 나이가 많아서, 언어가 달라서 등 차별의 이유는 무한하다. 다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존재가 특히 약자의 경우라면 더욱 가혹하다. 책 속의 사자는 어쩌면 신자유주의 체제의 악영향인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불의한 상황을 즐기며 키우는 개인끼리의 연대를 비유하는 것이 아닐까. 출근길 지하철 역사 안의 장애인들을 향한 댓글들처럼 말이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누군가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 '말'에 대답하는 것보다 먼저 어떤 '의도'를 궁금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은 본질을 보려는 의지일 것이다. 자칫하면 어느 새 '드디어' 자신이 먹힐 차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자가 '이곳에 머무르려면 내 명령을 따라야 해'라든가 '저 물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와 같은 말들은 우리 주변에 흔하다.

책 속에서 상황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고민하게 한다. 어쩌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지 않을까. 독서가 인간에게 주는 좋기도, 불편하기도 한 점이다.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67 추운 이유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낭만에 대하여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3) 존 레논의 [상상]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 해보면 쉬울 거야/ 우리 발아래 지옥도 없고/ 위에는 오직 하늘만/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봐, 아하 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봐/ 어려운 일이 아냐/ 이를 위해 죽고 죽이는 일이 없는/ 종교조차 없는 그런 곳/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봐, 유후 우// 소유가 없는 삶을 상상해봐/ 잘 그러지지 않겠지/ 탐욕과 굶주림이 필요치 않고/ 오로지 동포애만이 존재하는 삶/ 오 세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상해봐, 유후 우// 날 몽상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혼자 아니야/ 그대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야

낭만은 '도라지 위스키'나 '옛날식 다방'에 있지 않습니다. 낭만의 핵심은 상상(력)입니다. 현상 넘어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 주어진 현실에 체념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내일의 개벽을 꿈꿀 수 있는 혁명의 열정은 이러한 상상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회 앞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아니 한남동 차가운 길바닥에서 매서운 추위나 눈보라에 굴하지 않고 그 너머 민주주의를 꿈꾸는 상상력에 참 낭만이 깃들여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를 불온시합니다. 이들은 이런 능력을 흔히 이성이나 판단력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보편 원리를 강조하고 절제와 순응을 미덕으로 내세우면서!

반면 낭만주의자들은 보편의 원리보다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양태를 중시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구체적 삶의 모습에서 경이로운 의미를 끌어냅니다. 이들에게 경탄은 무지의 소산이 아니라 창조적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의미는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상상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말로,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꽃이 "내게로 와서 꽃이" 된 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주체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 없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기는 했던가? 과거의 역사, 그 증오의 기억에 매몰된 이들은 이렇듯 반박하며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보통 상상력은 기억력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얽매는 것은 창조적 상상력의 비상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거듭남을 꿈꿀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질곡의 현 상태를 공고하게 해주는 데 기여할 뿐입니다. 자본 세상에서 어떻게 소유 없는 삶을 꿈꿀 수

있을까? 탐욕과 굶주림으로 뒤엉킨 이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면 꿈꿀 필요가 없겠지요? 돈, 돈, 돈의 논리에 휩싸여 초등학교부터 취업을 걱정하게 하는 지금이 좋다면 이런 소유 없는 삶 상상할 이유도 없겠지요.

1971년에 발표된 존 레논의 이 노래가 오늘도 계속 감동의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순한 멜로디에 소박한 노랫말, 이 노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팝송으로 칭송되고 많은 가수들에 의해 재해석되며 전 세계인들이 아직도 따라 흥얼거리는 이유를, 그 까닭을 상상해봅시다! 왜 런던을 립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이 노래가 전 세계를 향해 울려 퍼졌는지도.

갈등과 반목, 그 질곡의 현실에서도 평화를 향한 거듭남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서일 것입니다. 아니 그 질곡의 도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원의 노래가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낭만의 상상, 혼자 하면 망상 혹은 몽상이 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낭만은 이를 꿈꾸며 꾸준히 노력하는 촛불과 응원봉을 든 젊은이들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소치 갈라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라빈의 노래와 영상 함께 감상하며 자꾸 무거워질 수 있는 상상의 날개 휘휘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낭만을 앞세워 현실의 질곡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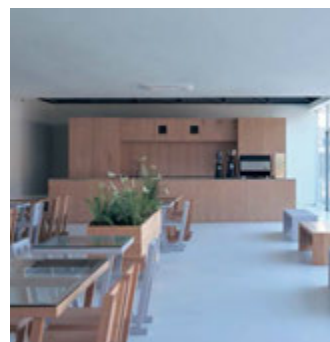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완주토박이 청년사장 비봉면서 '카페 돈들막' 열다

비봉면 소농리 주민들이라면 알고 있을 오래된 맛집 '식당 돈들막' 맞은편에 '카페 돈들막'이 자리 잡았다. 완주 토박이 청년 사장 조원주 씨는 카페의 자랑거리로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를 꼽았다. 건물 설계부터 가구, 소품 배치까지 원주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다. 카페 돈들막의 인기 메뉴는 자색꿀고구마라떼, 단호박라떼 등이다. 원주 씨는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 라떼 종류가 인기가 많고, 직접 고른 원두로 내린 커피도 자주 찾으신다"며 "완주 농산물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음료,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돈들막은 지역방언으로 '오두막'이라는 뜻으로 누구나 찾아와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주소_ 완주군 비봉면 천호로 549
·인스타그램 @cafe_dondlemak

·영업시간_ 10:00~19:00
·문의_ 0507-1416-6546

권력의 향배보다 소중한 가치

농/촌/별/곡



차 남 호

새해가 되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지혜를 상징한다고, 잘 계획하고 실행하면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도 더러 있지만 아무래도 국권을 잃은 을사조약(1905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더욱이 계엄선포에 이은 내란사태에다 제주항공참사까지 겹쳐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는 시절이다. 상황은 너무도 뚜렷하고 나아갈 길 또한 자명하건만 ‘정략’에 휘둘린 시국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뿌옇게 흐려진 형국이다. 하긴 세상일이란 게 죄다 내 맘처럼 돌아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겠다. 그래도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았던가. 때로는 헛다리를 짚고 엇박자로 헤매다가도 결국은 제 길을 찾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가. 그리될 것이라고 본다. 설령 그리되지 않는다고 해도 어찌란 말인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어쨌거나 제왕적 권력을 거머쥔 한 사람의 독단이 부른 망동으로 술한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처참히 무너진 건 물론이고, 온갖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고 너도나도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나 또한 그 피해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수선한 시국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쌀 주머니가 뚝 끊긴 것이다. “쌀이 안 팔리면 남은 쌀 먹고 살면 되지” 쓸쓸한 농담 뒤로 아찔한 생존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도 ‘뚫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근거 없는 낙관이 관성적인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럭저럭 농한기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먼저 다섯 번째를 맞은 ‘농한기영화제’. 고산권벼농사두레와 완주미디어센터가 함께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한편씩 주로 독립영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귀어, 미투, 종군위안부 등 성평등 주제를 다룬 영화가 주로 상영됐다. 탄핵정국 속에 펼쳐진 광장에서 다양한 의제가 꽃을 피운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듯도 하다. 뜻밖에 적지 않은 관객이 몰렸는데 위로가 필요한 시절임을 보여준 건 아닌가 싶었다. 한국 근현대미술 작품을 만난 건 특별한 행운이었

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마련한 ‘이건희 컬렉션’이 그것. 정경유작과 무노조경영으로 악명높은 삼성재벌 소유주가 그 재력의 일부를 예술품에 안배해 이번 전시회 부채처럼 ‘선물’을 안기다니 이거야말로 격세지감 아닌가 말이다. 이중섭, 박수근, 이응노, 김환기, 김기창... 술한 거장들의 작품을 친견하는 감동이라니. 느닷없이 황재한 기분이랄까. 아무리 농한기라지만 하루하루를 이렇듯 특별한 감동으로 채울 순 없는 노릇이다. 육신의 생존을 위해 삼시세끼 챙겨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건강을 돌보기 위해 뒷산을 오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다. 낙엽이 덮인 오솔길에 흰 눈이 쌓이고 짐승의 발자국이 찍힌 그 길을 거니노라면 세간의 번뇌가 무상해지기도 한다. 그래도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시 이어진다. 하여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내야 한다. 우리 삶에 모범답안 같은 건 없다. 저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각자도생, 제각각 살길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모으되 우리가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을 견지하지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장,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보전, 성평등 사회 같은 것이겠다. 이야말로 권력의 향배 따위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가 아닐까. 비봉 염엄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30인 이하 중소기업 활성화 위해 힘쓸 것”

완주군 중소기업 지원 위한 간담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1월 7일 새해를 맞아 기업지원 관련부서 등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관 전문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기현 사무관, 소공인진흥센터, 완주일자리센터, 완주군경제센터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기업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30인 이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됐으며, 2025년도 기업지원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올해 홈쇼핑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홈쇼핑 및 쇼핑몰 입점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됐으며, 소공인 진흥센터와 함께 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완주군 지역 중소기업들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여기로 모여!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청춘방앗간 짝짝이 회원모집

청춘방앗간에서 회원가입제도를 통해 프로그램 소식,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무료대관 등 앞으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기간: 상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년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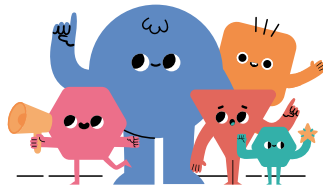


지난 12월 27일 저녁 삼례 새참수레에서 '2024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년의 밤' 행사가 열렸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그간 해마다 진행되었던 소설굿즈 한미당과 소설굿즈 어워즈를 계승하여 완주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완주 곳곳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인들이 모여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졌다.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저녁 식사 이후 다정다감협동조합 직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는 등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목할만한 활동을 선보인 몇몇 조직들에게는 특별한 상이 주어지기도 했다. 올해의소설굿즈 시상식 이후에는 퀴즈 맞추기, 이행시 짓기 등 게임을 통해 모두가 유쾌한 시간을 만끽했다.

- 다정다감협동조합 - 해오름상
-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 - 미리내상
- 고산마을배움사회적협동조합 - 나르사상
- 더나은문화공동체 - 반짝반짝상
- 두배공간 - 차곡차곡상
- 소양 반곡마을 - 너나들이상
- 자전거세상협동조합 - 영차영차상
- 키움협동조합 - 도란도란상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1월 한 해의 시작을 콩씨네와 함께"

시시콜극장 콩씨네 1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월 11일 (토) 오후 2시	장난감이 살아있다	애니	전체 관람가
1월 18일 (토) 오후 2시	그것만이 내 세상	드라마	12세 관람가
1월 25일 (토) 오후 2시	007 스카이프	액션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월 21일 (화) 오후 7시	괴물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자알림 신청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문자알림> 신청하면 미디어교육 및 상영정보 등 문자를 수신 받을 수 있다.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청년단체 '그린키킵', 전북도지사상 수상

(사진 그린키킵제공)



완주 청년단체 그린키킵이 '2024 전북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 발표'에서 전북도지사상을 받았다.

전북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만 18~39세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 청년단체의 지역 활동과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단체에게 과업수행비,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한다.

그린키킵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푸드클래스, 라이브커머스, 지역 음식 체험 행사 등을 기획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완주의 지역음식을 알렸다. 또 지역 농가와 협업해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하숨 그린키킵 대표는 "완주의 풍부한 농산물을 기반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경제와 청년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년 완주군 청년정책협의체(이장단) 참여자 공개모집

완주군 청년이장을 공개 모집한다. 완주군 청년정책 및 지역의 청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학교 등의 연고가 있는 청년, 완주군의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다. 신청방법은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글 신청서 다운 후 eventkn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완주군청 경제정책과 청년정책팀 063-290-3237

먹물 향기가 물씬나는 고산면 주민자치 서예반 작품 전시회

고산면행정복지센터 2층과 3층에서 고산면 주민자치 서예반의 작품 전시가 한창이다.

지난 12월 6일 고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마무리된 이후 17일부터 서예반 작품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먹물 향기로 고산은 행복하다'라는 주제의 전시회에서는 고산주민자치 서예반 수강생들의 작품과 삼우초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므로 방문에 참고하길 바란다.



벼두레 겨울 엠티

벼두레 겨울엠티는 벼두레 회원들이 겨울 시즌에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특별한 모임이다. 이 행사는 주로 맛있는 것을 함께 먹고 놀며 1년간 계획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월 18일(토)~19일(일) 오후 4시
장소: 동상면 은천길 31, 텃밭도종닭 가든
참가비: 성인 50,000원 아이 10,000원
 *한 가정당 반찬 1가지 가져오기



완주휴시네마 1주년 할인 행사

완주휴시네마가 재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연다. 상영관 내 카페에서 음료 메뉴를 50% 할인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인 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비봉면 문흥식 씨, 100만 원 상당 백미 기탁

비봉면 백도리 주민 문흥식 씨가 새해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웃에게 나눠 달라며 1월 7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20포를 기부했다. 전달받은 백미는 지역 저소득층에 전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 씨는 "비봉면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주민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봉면 할아버지 반찬교실, 나눔사업

1월 13일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 협의체 연간 운영계획을 재정했다. 위원들은 할아버지 반찬교실과 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을 2025년도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결정했다. 심미정 비봉면장은 "2025년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심독서클럽 모집

2월부터 어리틀빛오브도도가 책방지기의 사심 가득한 큐레이션으로 독서클럽을 시작한다. 첫 번째 책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로 작가 특유의 진심어린 문장들로 1980년의 5월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사심독서클럽을 함께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2월 3일/10일/17일/24일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12시
신청방법: naver.me/Fx8Hq9z 네이버 폼 접수
참가비: 4회차 20,000원
 *차와 간식 제공 *책 별도구매
장소: 고산로 73, 오른쪽 2층 어리틀빛오브도도

고산 비빔사계 계절메뉴 '꼬막비빔밥' 출시

고산 사계가 새로운 계절메뉴로 '꼬막비빔밥'을 선보인다. 이번 꼬막비빔밥은 푸짐한 꼬막과 신선한 해조류가 듬뿍 들어가 그 맛이 일품이다. 꼬막은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해조류는 씹을수록 고소함을 더해준다. 이 특별한 비빔밥은 고산 사계의 자랑인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져 고객들에게 겨울철 별미로 자신 있게 제공된다. 꼬막의 쫄깃한 식감과 해조류의 상큼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 어떤 비빔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2시 (일요일 휴무)
주소: 고산면 읍내리 888
 * 꼬막비빔밥 12,000원

고산면 희망빨래방 확대 운영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세탁 서비스 '희망빨래방'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희망빨래방은 매주 2회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등 세탁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에 고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적기에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일을 주 2회에서 주 5회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점심시간(12시~13시)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희망빨래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봉사자분들과 함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290-3646로 확인하면 된다.

미소시장 붕어빵집 오픈

고산미소시장에 겨울철 붕어빵집이 오픈했다. 바삭하고 고소한 붕어빵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고품질의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붕어빵을 제공한다. 매주 금요일 신선한 붕어빵을 준비해 맛있는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붕어빵 한 입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고산미소시장으로 모이면 된다.

영업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당일 재료소진 시까지)
 * 팔 붕어빵 1마리 1,000원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라온 (♀)
 훌륭한 눈망울 가진 라온!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10kg
나이: 5~6살 추정
건강상태: 중성화 완료, 심장사상충양성 (연계병원 치료가능)
 라온이는 2019년부터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다. 성격이 좋아 사람에게 거부감이 없고 입질이나 공격성이 없다. 이런 라온이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니. NON IN



영리권과 행상권
 조력권은 조력권
 영리권은 영리권

